

연중 제3주일(1월 21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4-20)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심

예수님이 서 계신 바위는 그분이야말로 우리 삶의 견고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황금빛 하늘은 제자들이 장차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림 두초 | 1311년, 템페라, 43.5x46cm, 워싱턴 국립미술관, 미국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당신께 의탁하게 하소서.
- 주님, 제 마음이 온전히 당신을 향할 수 있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르코 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 하시며 15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6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18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19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20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 1,15)

복음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 내가 내려 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나를 따라오너라.” (마르 1,17)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주저 없이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첫 번째 기쁜 소식은 바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하느님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져 준 그물을 버렸고, 함께 일했던 가족과 일꾼들을 버렸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자신들의 인생보다도 주님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내는 주일, 주님의 날은 인간적으로 볼 때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일상적인 시간, 또 한번의 일요일에 불과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결코 동일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계명도 있듯이 이 날은 주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온 날입니다. 이 거룩한 날을 어떻게 지내고,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날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이

날은 내 인생의 일부가 하느님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일부가 하느님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이 축복을 마음 속 깊이 받아들이면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